

# 세월호 여파·어항부진... 위기에 빠진 거문도

여객선 축소로 관광객 발길 뜰  
수은 상승에 갈치·삼치 실종  
여객선 준공영제 등 대책 시급

한 해 12만명 이상이 찾는 섬 관광의 메카이자 은갈치로 유명한 여수 거문도가 '위기'에 직면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와 수은 상승에 따른 어장 변화로 방문객이 크게 줄고 어획량이 급감했다.

우선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전해운의 면허가 취소된 뒤 거문도 여객선 선사가 1곳으로 줄어 외지인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또 대표어종인 갈치·삼치 품어는 옛말이 됐다. 11일 전남도,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여수여객터미널~거문도 간 여객선은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다. 여객선 정원엔 300명으로, 여객선이 추가로 배치되지 않으면서 하루 600명 정도가 거문도를 찾았다.

세월호 참사 이전 청해전해운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을 때는 하루 1000명 이상이 거문도를 찾았다. 방문객이 크게 줄다 보니 거문도항 여객터미널 주변 식당, 편의점, 숙박시설 등은 매출 감소 직격탄에 허덕이고 있다. 유림해수욕장, 영국군 묘지 등 유명관광지를 찾는 이도 거의 없다.

주민들도 배편 부족으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유지로 구성된 거문도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여수시에 여객선 운항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를 조만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김길생(67)씨는 "올 들어 거문도를 찾는 외지인



지난 10일 오전 거문도항여객터미널 주변 식당 및 점포거리. 휴가철 성수기임에도 관광객이 크게 줄어 한산한 모습이다. /거문도=김진수기자 jeans@

이 지난 2013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관광산업이 침체한데다 갈치 등 전종 어종마저 거문도 해역에서 사라져 주민들의 생활이 말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거문도의 상징인 '은갈치'도 이젠 구경하기 어렵다. 15년 전부터 매년 개최한 갈치축제는 올해 은빛바다축제로 이름을 바꿔 지난해 치렀으나 내년부터는 당장 취소를 고민해야 할 판이다. 축제의 주인공인 갈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수 거문도수협 측은 올 들어 갈치 위판액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했다. 최고 50억원에 넘어선 적이 있고, 지난해 9억원의 위판액을 기록했던 갈치가 올해 거문도 주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다. 지역 어민들은 양식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갈치회와 조림을 주메뉴로 내놨던 현지 식당들도 낭패를 보고 있다. 또 하나의 특산물인 삼치도 찾아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거문도수협 김효열(62) 조합장은 "562

명의 조합원 가운데 80% 이상이 양식업을 하고 있다"며 "수은 상승으로 어장 형성이 안 되면서 어민들은 물론 도·소매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문도, 금오도, 흑산도 등 관광객이 풍부한 전남 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여객선 준공영제' 등 관광객의 교통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외국인 카지노 추가 2곳 중 1곳은 비수도권 바람직”...여수 정도 힘실려

복합리조트 성공도입 세미나서  
박성용 교수, 균형발전 배려 주장

정부가 연말까지 2개 이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에 분산해 허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성용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희대 복합리조트 특기이명연구소(센터장 서원석)와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복합리조트 성공적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 예정인 복합리조트 2개소의 추가설립 시 수도권 쏠림현상

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한 곳은 지방에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수 정도복합리조트 선정의 명분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박 교수는 "2020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 수를 추산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이 확정된 5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서울 3개소, 인천 2개소)를 제외한 1곳의 추가설립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가 추진 예정인 복합리조트의 2개소 추가설립 시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한 곳은 지방에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별하게 복합리조트가 추가 설립된다면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처럼 적자 경영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추가 설립으로 기존시장 잠식이 아닌 신규시장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동열 의원은 이날 세미나의 인사말에서 "국내 복합리조트가 내륙관광 시장의 블랙홀이 되거나 카지노산업의 과잉투자로 출혈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추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내국인출입 허용주장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전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송학준 배재대 교수는 "카지노 공공과임으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 핏보스(카지노 감독자), 마케터 등 오랜 기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직원들을 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업체 갈등이 심화하면 결국 국내 카지노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34개 업체가 접수한 복합리조트사업 RFC(제안요청) 심사에 대한 결과인 제안요청서(RFP)를 이달 말까지 공고하고, 올 연말까지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짜맞추기 채용’ 장흥군 감사 적발

원서접수 당일 공고 등 드러나

장흥군이 특정인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원서접수 당일엔 공고 내는 등 엉터리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전남도 감사관실에서 따르면 장흥군은 군정홍보를 강화하려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 홍보업무 담당할 임기제 8급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고 A씨를 임용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장흥군에서 보도자료와 연설문 작성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 장흥군은 형식상 공개경쟁 절차를 거쳤지만 사실상 A씨를 내정한 후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흥군은 원서접수 당일엔 공고를 내 불특정 다수의 지원기회를 박탈했다. 자격기준도 내부 규정상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데도 3년 이상으로 1년을 늘려 과

다하게 제한했다. A씨가 2010년부터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점을 감안하면 '맞춤형 자격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흥군은 A씨 혼자 응모했는데도 재공고 없이 A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면접위원 구성도 엉터리였다. 규정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토록 했으나 3명으로 구성된 채 외부인사도 1명만 위촉했다. 장흥군은 지난 2013년 7월과 10월 과 학관, 학생도서관 운영자도 지방계약직 '리'급 2명을 채용하면서도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채용공고 기간도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관 운영자 응시자는 단 1명이었는데도 재공고 없이 최종합격자를 선정 이상인데도 3년 이상으로 1년을 늘려 과

## 초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 전원 부적합

중량급인사 추천임명설 제기

광주·전남연구원의 초대 원장 공모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던 응모자 3명(광주일보 10일자 5면) 모두 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원장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재공모와 추천위원회 추천 등을 포함해 원점에서 원장 선임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전원 부적합 결정을 놓고 일각에선 중앙 정부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력인사의 초빙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추천위원회는 소위원회 열어 1차 관문을 통과한 3명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원장응모에는 애초 7명이 지원했으며, 지난 9일 원장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에 이들 3명이 통과했다.

내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전원 탈락이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진 것은 첫 통합원장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중량급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통합원장의 대우가 장관급이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원장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원장 선임 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이지만, 공모 없이 유력인사를 초빙하는 등 추천임명의 가능성도 크다.

유력 인사들의 경우 경쟁을 거쳐야 하는 공개모집에는 참여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이들을 선임하기 위해서 추천 임명 방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모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통합 원장을 제안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천 임명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내년 신안에 경찰서 신설 확정”

새누리 주영순의원 밝혀

신안경찰서가 조만간 신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주영순(사진)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신안경찰서 신설을 확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도 내년 경찰서 신설지 역으로 경기도의 한 지역과 함께 신안을 결정해, 기재부와 협의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가 만약 한 곳을 고집



하더라도 신안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안은 면적이 서울시의 22배이고 1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수성에

도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다. 신안군과 주민들은 지난 2007년부터 '신안경찰서 유치위원회'를 결성해 각종 활동을 펼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10여년을 고객과 함께한 전국1위 골프멤버십

### 전국 명문 300여개 골프장 무기명4인 주중, 주말

## 정회원 선불 특별회원 모집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지원

**상품안내** (단위: 만원(VAT별도))

구분	다이렉트1	다이렉트2	퍼펙트(법인)	프라임
총액	3600	1050	1600	950
통장보증	3000			
입회금	600	1050	1600	950
이용기간	5년 180회	5년 180회	5년 280회	5년 140회
이용횟수	월4회 년36회	월4회 년36회	월6회 년56회	월3회 년28회
회원등재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	본인+무기명3	본인+무기명

\* 주중/주말 사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상담바랍니다)

**선불 특별회원 가입안내**

-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정회원 대우 그린피 혜택
- 호남, 제주 그린피 전액 지원
- 법인 무기명 4인 사용 가능
- 동남아, 중국 무료라운딩(동절기)
- 년2회 국내 및 해외 회원 초청행사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062)371-1800**

리즈골프는 2002년도에 설립되어 업계 최다수의 회원님들을 서비스 관리해 드리고 있는 고객만족도 최고의 회사입니다.